

〈공군! 미리 알고 편하게 가자!〉

## 〈목 차〉

### 1. 공군 자대 배치까지

-기본군사훈련단과 정보통신학교 후기-

(훈련소 꿀팁첨부!)

### 2. ★꿀정보★ - 꿀특기와 꿀자대

(아무도 안알려주는 수도권 자대  
리스트가 담겨있고 자대 고를때 꿀팁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 서론

남성 오르비언 님들 반갑습니다. 군대를 가야 하시죠??

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뭔가 2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깝습니다.. 우리 오르비언 님들이라면!! 2년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기도하고 좀 더 클린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고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투사를 써봅니다... 후 높은 경쟁률에 떨어졌습니다. ππ (카투사 붙었으면 이거 안볼거라는거 다 압니다) 두 번째 꼴이라는 의경도 시험을 봅니다... 후... 3번,4번 시험봐도 계속 떨어집니다. πππ

이제 크게 두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공군같까 아니면 육군,해군,해병대 같까 공군은 24개월이고 후자는 21~23개월입니다. 3개월 차이가 나서 고민이 됩니다. 고민되는 여러분께 고민해소를 위해서 이 파일을 씁니다.

## 공군의 장점

1) 자대와 특기를 자신의 선택과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직과 자대가 이미 랜덤으로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힘든 군생활을 하게될지 편한 군생활을 할지가 모두 랜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공군의 경우 자신이 총을 잘 쏘고, 종평을 잘 보고 , 특기학교에서 열심히 한다면 자신의 집과 가까운 자대, 편한 자대를 갈 수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우습게 볼 면이 아닙니다.

2) 사람들이 클린한 편이다.

또라이보존의 법칙이라고 어떤 집단을 가더라도 또라이와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공군의 경우 최소한의 필터링을 걸치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 일반적으로 클린한 편입니다. 또한 선진 병영 체계 답게 신고 시스템도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병사도 다른 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3) 2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군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훈련을 많이하는 부대의 경우 그냥 부대훈련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독서실같이 열람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공군의 단점: 3개월 길다는게... 저어어영어어말... 깁니다

# 1. 공군 선발 과정

<http://blog.naver.com/daybyday1119/220614571590>

여기 와서 확인하세요.. ㅋㅋ 저는 15년도 기수라서 새롭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일반” 특기로 가려고 할거예요 제 생각에 일반 특기에서 “헌급방” 특기만 피하면 대부분 특기보다 편합니다.

원래 수능 및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2016년 2월부터 폐지가 되어서 한국사 자격증, 토익시험, 헌혈, 봉사 등의 가산점 싸움이 되었습니다.

“공군 갤러리” 를 통해서 커트라인 점수와 비교해보시고 부족하시면 가산점을 더 쌓아서 입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신이 일반특기 가기위한 가산점을 따기가 귀찮다면...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같이 기능사 하나 따서 통신전자정비 특기로 비전공자 임에도 2순위로 바로 입대하실수 있습니다.

1차를 합격하시면 2차에 면접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공군회관쪽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에 있어서 커트라인이 간당간당 하신것만 아니면 2차 면접에 큰 부담을 갖으실필요는 없습니다. 결시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안히 하고싶은말씀 하시고 정상인처럼만 나라지키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예전보다 면접비중이 조금은 커진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면접때 크게 물어보진않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안보관을 갖고 , 자신이 정상인이 아니더라도 정상인 빙의해서 어필하면 될것같습니다 (사실 공군에 면접이 있음에도 애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거지? 싶은애들 엄청 많아요)

## 2. 공군 입소 과정

공군에 합격하신 전우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입대날에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와서 입대를 하시면 됩니다. 홀수기수 (ex 721기) 의 경우 신병 1,3대대로 배정이 되고 짝수기수(ex 754기) 의 경우 2,4대대로 배정이 됩니다. 시설로 따지면 2>1>>>>4>3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짝수기수로 입대하시길 바랍니다. 입대전에는 에이.. 군대가는데 시설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겠지만.. 입대 후에는 2대대 꼴쟁이들... 하면서 다니실 겁니다. (3대대는 2016년 중반에 철거된다네요)

=> 신설 3대대가 설치되면서 시설은 3>>2>>>1>>>>(넘을 수 없는 벽)>>>4 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홀수기수때 입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대대가 걸리게되면 넓게쓰기위해서 구 3대대 건물을 같이 쓴다고 합니다. 제가 3대대 청소하러 가봤기 때문에.. 참..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훈련소 대대 때문에 일부로 한 달 뒤에 입대하거나 그럴필은 없습니다. 자대오면 다 한 달만 빨리올걸.. 이르기 때문에

입대 준비물은 입영통지서에 있는 것대로 챙겨 오시면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우표와 필기도구 그리고 개인 상비약입니다. 나중에 편지를 부칠 수 있게 되는데 유일한 소통구 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필기구는 종평때

공부하기를 위해 제트스트림 멀티펜(3,5색) 추천 드립니다. 개인 상비약은 처방전이 있어야합니다. 개인 처방전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먼지가 많은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침 기상을 기침과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훈련 받기도 짜증나는데 콧물 흐르고 기침하고 목아프면 훈련의 강도가 나만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냥 입대전 병원 가서 감기약 2주치 미리 사서 들어가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나중에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똥쟁이다 싶으시면 두루마리 휴지도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조교들이 다 집에 보낼 거니까 웬만한거 다 보내라고 할텐데 두루마리 휴지 왜 안냈냐고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왜 필요하냐면 보급휴지를 정말 천천히 주기 때문에 똥싸고 싶어도 휴지가 없어서 똥을 못싸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훔칠게 없어서 휴지를 훔치기도 합니다.

진주에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진주에 냉면과 고기가 유명하다는데 정말 그것밖에 먹을 게 없더라고요.. 진주 시장이나 터미널 쪽에서 고기 드시고 입대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어차피 곧 훈련소에 가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건지 뭐를 먹는 건지도 모를 겁니다.. ㅋㅋㅋ

훈련소에 이제 가게 되면 입소식 행사를 하고 부모님과 분리! 를 하게 될겁니다 이때 울지마시고 몇몇하게 부모님을 보내드리면 천막 밑에서 자기가 신병 몇 대대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흡수 기수인 경우 다들 3대대를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앞에 종이에 명단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과 그 옆에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숫자에 3으로 시작하거나.. 4로 시작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망했습니다. 3대대와 4대대입니다. 3대대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겁니다. 침상에는 금이 가있고 한 방에 20명씩 자고 정말 귀신나올 것 같은 곳입니다. 반면에 1대대와 2대대가 걸렸다면.. 축하드립니다.

=> 이제 3대대가 신형건물로 바뀌어서 3이라고 써있으면 좋은 기수가 되는 겁니다 아마 1대대인지 3대대인지의 규칙은 이름순에 따라서 결정될겁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들은 최대한 다른 대대에 있더라고요

훈련소에서 일주일 동안은 입대장병으로 불립니다. 일주일 기간동안 신체검사와 각종 검사만 하고 계속 대기.. 대기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 있는걸까? 나는 정말 군인인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듭니다. 이제 금요일이되면 무슨 질병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집에 가는 훈련소 동기들이 생깁니다. 5일동안 있었지만.. 정이 들었는데 간다고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치킨먹으러간다고 놀리면서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고 이제 머리를 만집니다. 스님처럼.. 하얗게 만집니다. 머리를 자르고 거울을 보니 한 마리의 오징어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잘생겼던 동기도 오징어 주꾸미가 되어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빨이구나를 느끼며 머리를 감아봅니다... 뭔가 머리가 머리같지 않고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느낌입니다. 머리도 수건으로 몇 번 털면 금방 마릅니다.

### 훈련소 1주차 끝 2주차 본격 기간 시작

이제 입대장병이 끝나고 훈련병이 되었습니다. 봐주던 조교들도 이제 훈련병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다닙니다. (아니!!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사회에서는 좋은 뜻인 동기부여는 이곳에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났다하기 등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에 각종 제식 훈련들을 합니다. 맨손 제식 총기 제식을 합니다. 소리를 크게 질렀지만... 소대장과 조교들은 목소리가 작답니다. 한번 구릅니다... 제식은 힘들지 않지만 구르다보니 힘듭니다. πππ 일주일동안 각종 제식과 이론초기교육을 받습니다. 아차!! 각종 근무가 있습니다. 행정근무, 군기근무, 군수근무, 보급근무, 호실선임 등등... 안해도 무방합니다만 꼭 해야한다면 보급근무와 중대기수를 하세요 보급근무는 세탁기 돌려주는거고 중대기수는 그냥 깃발들고있는건데 아무것도안하고 깃발들고있어서 총도 어깨에 매고 갈 수 있어요!!! 군기근무는 절대로하지마세요!!!! 기훈단에 보면 낙서에 꿀수 꿀기근무 개꿀 이라고 쓰여 있는데 ㅋㅋ 왜 써있을까요?? 꿀이 아니니까 써 있겠죠?? 군수근무는 군장관리하는건데 엄청 귀찮습니다.. 훈련 끝나고 좀 쉬려고하면 꿀수근무 군장 애들거 건어서 가져오라 고하고 훈련하기 전에는 컵 소독해야한다고 갖고 오라고합니다. 이제 제일 뻑센 군기근무는 총가키 일면 꿀가키 담당입니다. 자신의건물이 4층이라면? 1층에 내려가서 조교한테 총가키를 받고 총을 다 열어주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반납해야합니다. 이런 어메이징한 근무들을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 2. ★꿀정보★ - 꿀특기와 꿀자대 -

**참고사항: 개정된 부분을 따로 다른색으로 표시하지않고 내용수정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 할 겁니다. “한 번의 군생활.. 이왕 가는거 편하게 할바에 고생도 해보고 많이 배우고 싶다” 취향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군생활을 해본 결과.. 힘든 일은 정말 6개월 정도만 해도 느끼는 점들이 많고 정신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대라는 특성상 내 자신이 더 안하고 싶은데 안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차라리 편한곳으로 가는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계발을 하고 싶으신분들은 일과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편한특기가 낫겠죠. 일반적으로 보급특기를 제외하고 사령부급이상의 자대가 가장 좋습니다. 간부, 장교들도 좋은편이고 병사들 복지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이트의 경우 포대 + 관제부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부분 포대가 육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안좋다고 알고계시지만 아닙니다. 최근에 듣기로 관제부대에서 사고가 있어서 경계 순찰이 강화되어서 사이트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실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힘들구요 그냥 육군gop에서 하던 일을 공군 와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제부대 보다는 포대로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주5일근무하고 주말보장이 되는 일과제 특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크루근무나 일직근무의 경우 위로휴가도 하루 더 받고 자유시간도 더 많아보이지만 정말 쉬는날이 없거나 적고 유일하게 휴가때 실수가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공부역시 주5일 일과제특기가 하기 수월함을 장담합니다. 그리고 정훈특기 교육특기는 정말 좋은 꿀특기이기 때문에 자대에게서 부서 배치가 정훈, 교육이 가능하다면 무조건하세요!! 정훈은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정보전달하는 특기, 사진찍는 특기라고 보면됩니다.

〈제 군생활과 주변 선호임, 멀게는 훈련소 동기부터 인트라넷 상으로 물어본 결과입니다〉

### 1) 일반특기

항공관제, 항공통제, 항공 기상관측, 항공 기재보급, 항공 유류보급, 항공운수, 항공소방, 회계, 총무, 항공 정보운영, 특수정보, 정보체계운용  
(파란색의 경우 정보가 없어서 파란색 표시합니다)

일반특기 중에서 빨간색 글씨의 특기를 추천합니다.

ㄱ) 먼저 항공관제(운항관제) 는 대부분 비행단으로 가게됩니다. 이 때 추천하는 자대는 사천, 예천, 성남 비행장입니다. 언급한 비행장은 전투기의 양이 타 비행단에 비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합니다. 유일한 사이트인 태백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휴가도 많이주고요. 실내근무하는 특기도 있고 밖에서 새를 쫓는 Bat 병 특기도 있는데 실내근무는 정말 편한데 Bat 병은 거의 헌병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비행단에 새가 얼마나 많겠어?? 싶겠지만 거의 밖에서 근무를 하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받기 때문입니다.

ㄴ) 항공통제 - 항공통제는 기훈단 특기분류 시험에서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항공통제는 MCRC로 가면 크루근무라서 정말 힘들지만 사이트에 오게되면 일과제 생활을해서 추천합니다. MCRC로 가도 야간근무 한번만 서고 이틀을 쉴 수 있다고하네요 워낙 보안이 심한곳이라 정보를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야간근무서고 이틀의 휴식을 받고싶다 하시면 지원하세요

ㄷ) 기상관측 -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평타이상의 특기입니다. 비행단의 경우 일직근무(24시간 근무후 근무비번) 형태로 운영되며 다른자대의 경우 일과제로 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주로 지구과학과 지리학과 등의 전공점수로 합격하는곳입니다.

ㄹ) 항공기재보급 - 소위 보급특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같은 보급이지만 유류보급은 절대로하면 안됩니다. ㅋㅋ 소규모 보급은 일이 적어서 꿀입니다.

ㅁ) 항공소방 - 주로 비행단으로 가게됩니다. 소방부서가 두 개로 나뉘지는데 한 부서는 훈련이 많고 빠세고 한 부서는 그냥 아무것도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타이상의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ㄴ) 회계, 총무 - 회계특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평타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특기는 최상 꿀 or 최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풀리면 편하게 생활하는거고.. 1인To인데 일은 많은곳 가면 과로사 하게 됩니다. ㅋㅋ 주로 추천하는 자대는 사령부급 이상의 자대, 사이트입니다.

(공군은 사령부급-단급-전대급-사이트급의 순서대로 위계체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을수록 각종 검열과 높으신분들의 방문으로 신경쓰게 많기 때문입니다. 상위부서일수록 좋은 간부,장교분들이 많고 병사복지또한 좋은걸로 알고있습니다)

ㄷ) 정보체계운용

흔히말하는 전산 특기입니다. 훈련소에서 수학성적이 높다면 암호특기도 받을 수 있는데 암호특기 선발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암호특기에 관해서는 현재 근무자보다는 전역자에게 들었는데 암호실에서 24시간 생활을 하는데, 중위 미만 간부들은 암호실에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고 암호실 내에서 공부를 하거나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전산특기 내에서 암호특기를 뽑았었는데 듣기로는 분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정보체계운용은 말그대로 컴퓨터와 주변기기에 관련된 병사입니다. 자대에 가면 주로 컴퓨터 고쳐달라 이런말 때문에 귀찮게 여기저기 불러가지만 공군특기중에서 상위권임을 자부할 수 있는 특기입니다. 비행단 정통대대로가면 일이 거의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부 비행단은 주간/야간 분리근무를 통해서 근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통사 쪽으로 빠지면 유격, 흑한기 훈련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특기이지만.. 자대 복불복이 심한특기이기도 합니다. 사이트에 가게되면 거의 100% 일직근무를 서게 될텐데 대신 야간에 딱히 하는일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령부, 단급이상을 1지망으로 하시고 2지망 비행단 3지망 사이트 하면 될것같습니다.

3) 통신전자전기

#### ㄱ) 레이더체계정비

흔히 레이더= 꿀 이라고 인식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24시간 작동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이트의 경우 정말 힘들구요 비행단의 경우 상위 5위 꿀특기 안에 듭니다. 비행단 레이더의 경우 정말 괜찮습니다만 주말이 없고 유일하게 쉬는날이 휴가때만 알고 있습니다. 야간비행이 있을때 레이더도 그에 맞춰 운영해야하고 주말에도 점검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감생활이라고 생활관말고 직감실에서 생활하는 것의 장점도 있습니다. 자대에 따라서 3~5개월만 직감가능한곳과 전역할때까지 풀직감인곳이 있습니다. 풀직감인곳은 제가알기론 강릉 비행장과 예천 비행장이 있고 나머지는 직감은 많이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감의 경우 자기계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취방에서 생활하는것 같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다 있고 일과중에도 공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레이더특기를 선택했을때 비행단 TO가 얼마나 나오는지 갈리기 때문에 자신이 사격에 자신이있다면 추천합니다. 사이트 레이더와 비행단 레이더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고 극과극을 자랑합니다.

#### ㄴ) 무선정비

일반적으로 무선정비는 꿀로 알려져있습니다. 딱히 몸쓰는 특기도아니고 기계가 알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힘들지않아서 평타이상의 특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제TO가 줄어들어서 흔히 말하는 짱비짱비 근무를 서야할 수도 있습니다.

(짱비짱비란 이틀에 한번씩 24시간 근무를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자대는 비행단, 사이트(포대0,관제부대x)입니다. 관제부대를 추천하지않는 이유는 최근에 관제부대에 사건이 생겨서 일이 추가되어서 체력적으로 힘드실겁니다. 그리고 TO가 3명으로 줄어든 곳이 많아서 한 명이 휴가나가면 두 명에서 계속 24시간 근무를 이틀에 한번씩 서야합니다.

무선특기의 경우 특징이 있다면 분반을할 때 자신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A,B반이 국통사로 알고있고 C,D 반이 TACAN 특기 E반이 위성통신 F반이 엠프로 알고있는데 A,B반만 안가면 된다고생각합니다. A,B 반에 가면 육군처럼 혹한기훈련과 유격을 받아야합니다. C,D반에 가는게 가장 좋구요

위성통신반도 좋습니다. 1인TO라고 보시면됩니다. 군대에서 1인TO가 정말 좋아요 사이트,포대 위성통신반의 경우 아무것도 안한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의 특기에 정말 만족한다고... 일과중에 하루종일 자고 일과후에 풀공부한다고 들었습니다.

#### 4) 의무특기

이 특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고계신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만약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 자격증이라도 따셔서 입대하고싶으신분들은 무조건 지원하세요 정말 좋은특기입니다. 사이트 의무병이 최고존엄입니다. 하루종일 아무것도안하고 환자올때만 바쁩니다.

### 〈자대 조언〉

#### 비행단, 사이트, 포대 어디로 가야할까?

저는 사이트 소속으로서 여러부대에 파견을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느낀점을 알려드리자면

##### 비행단같은 대규모 부대:

- 1)복지가 잘되어있다(BX도 크고 피폭샵도 잘되어있음, 치킨피자집이 있음)
- 2)다른 대대의 경우 아저씨이기 때문에 다른특기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 3)사람이 많다보니 밥이 정말 맛이없다(그래도 훈련소에 비하면 꿀맛)
- 4)생각보다 군기가 세지 않았다. 오히려 사이트보다 널널하기도 하다

##### 사이트,포대같은 소규모 부대:

- 1)밥이 맛있다.
- 2)복지가 후달리다(BX 물품도 잘 리필이 안될때가 많고 휴가나갈때만 치킨,피자를 먹기 가능)
- 3)사람이 적다보니 다른 특기 선임도 내 선임이다. 즉 내가 내 부서에서 잘못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특기 선임이 나를 혼내고 갈굼 수 있다는 것.. 이게 은근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 부서에서 잘못된걸 헌병 선임, 시설 선임한테 혼나야합니다.
- 4)생각보다 군기가 세고 악폐습이 존재함 : 저희부대의 경우 별것도 아닌걸로 감점 30점 때려서 휴가자르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어느정도였냐면 부대인원 3분의1이 휴가를 하루이상 잘려본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부대에 물어보면 진짜잘못한거 아닌이상 휴가를 안잘린다는데 소규모부대의 경우 이불 안개고 상번했다, 머리가 길다 등의 정말 사소한 이유로 휴가를 잘랐습니다. 악폐습의 경우 주임원사가 으뜸병사한테 모든권력을 주어서 으뜸병사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병사들 일부로 휴가 자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여도 비행단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되거나 그에 맞는 처벌을 하는데, 소규모 부대의 경우 소문이 다 나게되어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